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초혁신경제 구현방안 논의

- 제4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 개최 -

-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커머스 분과 신설
- 분과별로 AI 대전환의 파고를 넘을 중점 프로젝트 발굴

재정경제부는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주재로 4.28.(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4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4.28.(화)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김성수 연세대 공과대학 특임교수(부위원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당연직),
차정훈 前 (주)카이스트홀딩스 대표이사(총괄간사/반도체 분과위원),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AI·로보틱스 분과위원장),
유승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바이오 분과위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에너지 분과위원장),
손대권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前 군수사령관(방산 분과위원장),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우주·양자 분과위원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우주·양자 분과위원)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AI에이전트커머스 분과위원장)

전략경제자문단은 지난 4.13일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출범하였다. 박영선 자문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커머스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에이전트커머스’ 분과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는 이에 공감하고 기존 6개 분과*에 더하여 해당 분과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전략경제자문단은 출범 2주만에 총 3차례(4.13, 4.21, 4.27) 총괄위원회 회의와 분과별로 1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였다. 오늘 4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정부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내 치열한 토론을 거쳐 “AI 대전환의 파고를 넘을 중점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대외환경 변화와 AI 대전환이라는 구조적 재편 국면에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등 우리만의 강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변화에서 뒤처지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부 내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대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 등과 함께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총괄위원회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에도 참석하는 등 전략경제자문단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들을 경청하며, 정책과제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오늘 회의에서 민 실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회의를 개최함에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뜨겁게 고민”하여 “전략산업이 향후 50년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과제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전략경제자문단이 제안한 프로젝트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략경제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자문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44-215-4930)
	전략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지 (song15th@korea.kr)

1.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 **신통상환경** 대응 및 초혁신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산업 중요성 증대

⇒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국책연, 학계,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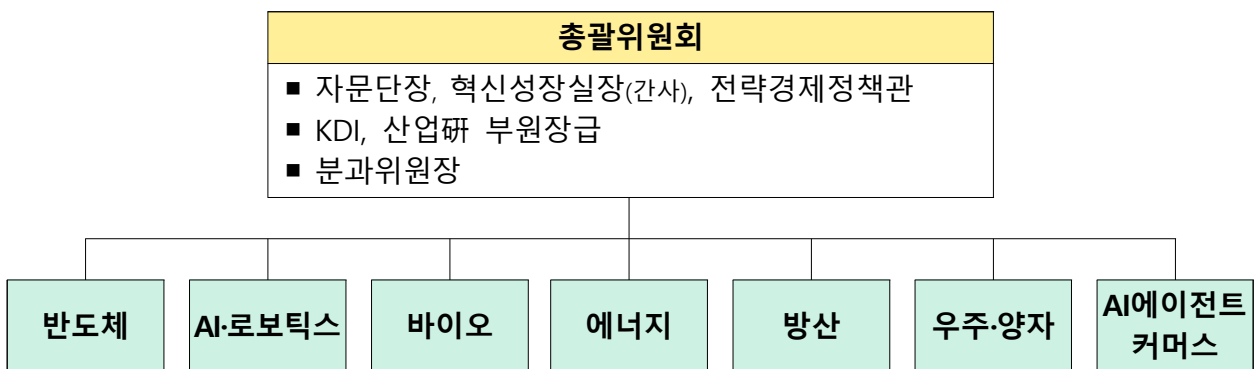
*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재경부 훈령) 마련, 4.7일 시행

2. 자문단 구성·운영(안)

□ (구성) 총괄위 + 7개 산업별 분과위(임기 1년, 연임 可)

○ (총괄위) 자문단장(민간) + 국책연 부원장(KDI, 산업연) + 분과위원장

○ (분과위) 분과위원장(민간) + 산업별 국책연·학계·기업 등(6~10명)



□ (운영) 총괄위·분과위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